

서울시 소재 경로당 중식 5일제 전면 추진의 수요 예측에 대한 연구

선소원 | 주희진





2024 정책이슈리포트

서울시 소재 경로당 중식 5일제 전면 추진의 수요 예측에 대한 연구

저자 **선소원** | **주희진**

연구진

연구책임자 · **선소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Contents

I ▶ 연구 배경 및 목적

01 연구 배경	4
02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6

II ▶ 서울시 소재 경로당 현황분석

01 서울시 노인인구 현황 분석	7
02 서울시 경로당 현황 분석	12
03 서울시 현황 종합 분석	19

III ▶ 경로당 중식 5일제 전면 시행에 따른 수요예측

01 경로당 중식 5일제 전면시행에 따른 수요예측	21
02 중식 5일제 의무 확대 시 경로당의 변화	24

IV ▶ 경로당 중식 5일제 전면 시행에 따른 주요 문제점 및 해결방안

01 현재 제도의 문제점	26
02 인터뷰를 통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27

V ▶ 결론

01 연구요약	34
02 경로당 중식 주 5일제를 위한 정책 제언	36



참고문헌	40
------	----

I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노인복지의 중요성 확대

-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비율 및 고령인구 연령의 고령화가 확대되고 있음
 - 202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서울시 인구의 15.82%이었으나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8.36%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또한 노인인구 중 80세 이상 인구비율이 2000년에는 15.6%에서 2024년에는 22.3%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노인인구 자체도 고령화되는 추세임
- 서울시 노인의 확대 추세와 더불어 취약계층의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기초생활수급자는 2012년 30.80%에서 2022년 41.47%로 10년 사이 약 10%p가 증가함
 - 전체 1인 가구 중 1인 노인가구의 비중 역시 2010년 16.24%에서 2022년 19.76%로 증가하고 있음
 - 노인 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가 및 1인 노인가구의 증가 등 최근 노인의 사회적 고립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노인의 기초적 생활여건 마련을 위한 경로당 중식 확대 논의 대두

- 많은 경로당에서 노인의 기초적 생활을 위하여 중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자치구별로 제공 여부 및 횟수는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어 노인복지의 측면에서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 경로당은 식사 제공의 여부 및 제공 형태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경로당이 급식지원 인력에 대해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음
- 중식 5일제를 실시하게 되면 식사도우미를 구하는 문제와 부족한 주방 요건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 의회 의견도 있음¹⁾
-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경로당의 기존 기능이 저하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송재혁의원이 「서울특별시 고령친화적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 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으나 현재 계류 중임
 -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양곡구입비, 냉난방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는 ‘경로당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별도의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 또한 자치구별로 경로당 급식 지원 및 운영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인 급식지원을 위해 조례로서 경로당 급식 지원의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그러나 경로당 중식 5일제 도입을 위한 비용추계에서 본 개정안의 검토보고서에서는 경로당 이용 노인의 급식수요 파악의 어려움으로 ‘비용추계 곤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서울시는 2024년 7월부터 경로당 이용 노인들에게 주 5일제 점심을 제공할 예정임
 - 경로당 중식 제공을 위해 총 47억 원의 추경예산(양곡비와 부식비 18억 원, 중식도우미 30억 원)을 편성함
- 따라서 본 연구는 경로당 중식 5일제 도입(확대)의 필요성 및 정책효과 추정을 위한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중식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 금천구의회 본회의 의회록(2024년 2월 14일)

2.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 서울시 내 경로당 중식 현황 조사

- 현재 경로당 내 중식 이용 현황을 위한 보건복지부, 서울시 자체 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1) 경로당 평소 이용률, 2) 경로당 중식 이행률, 3) 경로당 중식 이용자수 등 현황 등을 파악함

□ 경로당 중식 5일제 확대에 따른 수요 파악

- 서울시 경로당 중식 이용 현황자료를 활용하여 경로당 중식 5일제 확대에 대한 수요 현황을 파악함

□ 서울시 경로당 중식 5일제 시행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한 현행 중식제도의 주요 문제점, 중식 5일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도출함
- 서울시 중식제도 개선을 위한 서울시 경로당 중식 5일제 시행 방안을 모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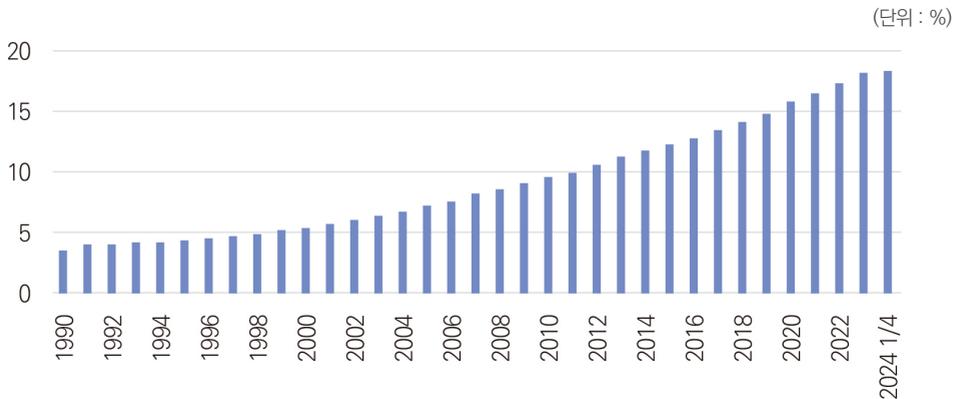
II 서울시 소재 경로당 현황분석

1. 서울시 노인인구 현황 분석

□ 서울시 노인인구비율과 연령별 노인비율의 증가

-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노인인구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남(1990년 3.42% → 2024년 1/4분기 18.36%)
 - 노인인구 확대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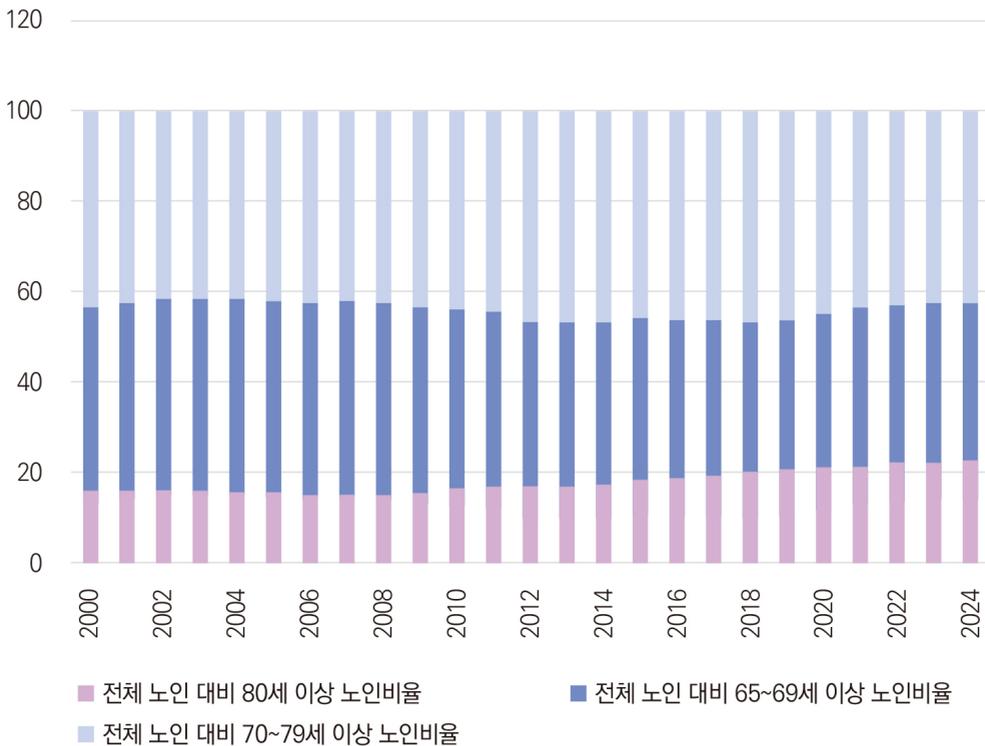


출처 : 서울시 통계자료(1990년-2022년: https://stat.eseoul.go.kr/statHtml/statHtml.do?orgId=201&tblId=DT_201004_O020001&conn_path=I3, 2023년 4/4-2024년 1/4: https://stat.eseoul.go.kr/statHtml/statHtml.do?orgId=201&tblId=DT_201003_A010006&conn_path=I3)

- 특히 서울시 노인인구 중 80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비율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노인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함

- 노인인구 중 80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 비중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2000년 15.64% → 2024년 22.26%)
- 이와 같이, 노인인구 중 초고령 노인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노인의 특성에 맞는 차등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의 설계가 필요함

그림 2 연령별 노인 비율



출처 : 서울시 통계자료(<https://data.seoul.go.kr/dataList/10718/S/2/datasetView.do>), 서울시 등록인구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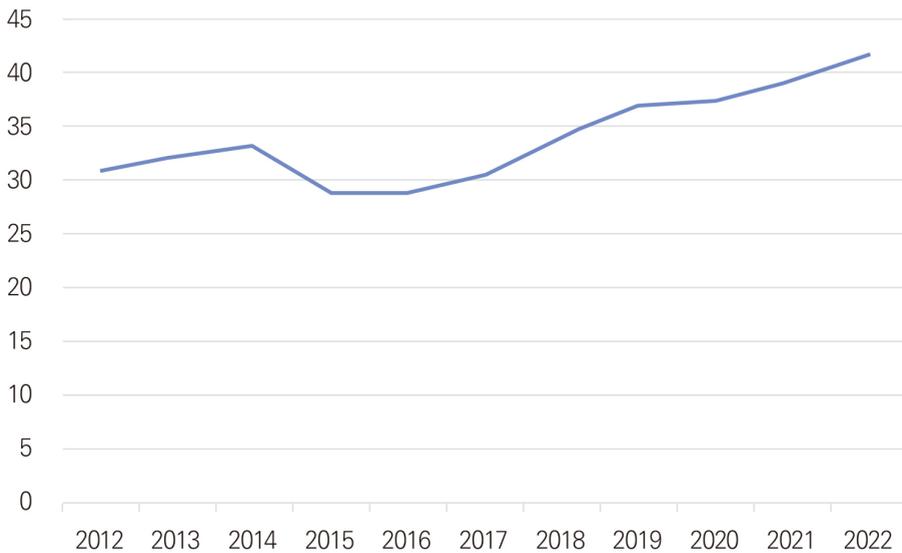
□ 취약노인의 증가 추세 : 서울시 거주 노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1인 가구의 증가

- 노인기초생활수급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노인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OECD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OECD 회원국 평균이 14.2%에 비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²⁾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2) 자료 : 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2024년 1월 22일). 한 눈에 보는 연금 2023

- 특히 7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52.0%로 절반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같은 기간 OECD 평균보다 35.4%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서울시 역시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2012년 30.80% → 2022년 41.47%)
- 예컨대, 중구는 노인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49.76%로 50%에 육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에도 종로구, 영등포구 등 18개 구에서 노인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40%를 넘게 나타나고 있음
- 취약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노인에게 경로당의 중식 제공은 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질 수밖에 없음
- 이와 더불어, 구마다 취약노인의 비율이 차이가 있으므로 더 필요한 구가 중식 5일제를 먼저 시범 실시하는 등 단계적인 경로당 중식 5일제가 실시될 수도 있음

그림 3 기초생활 수급자 중 노인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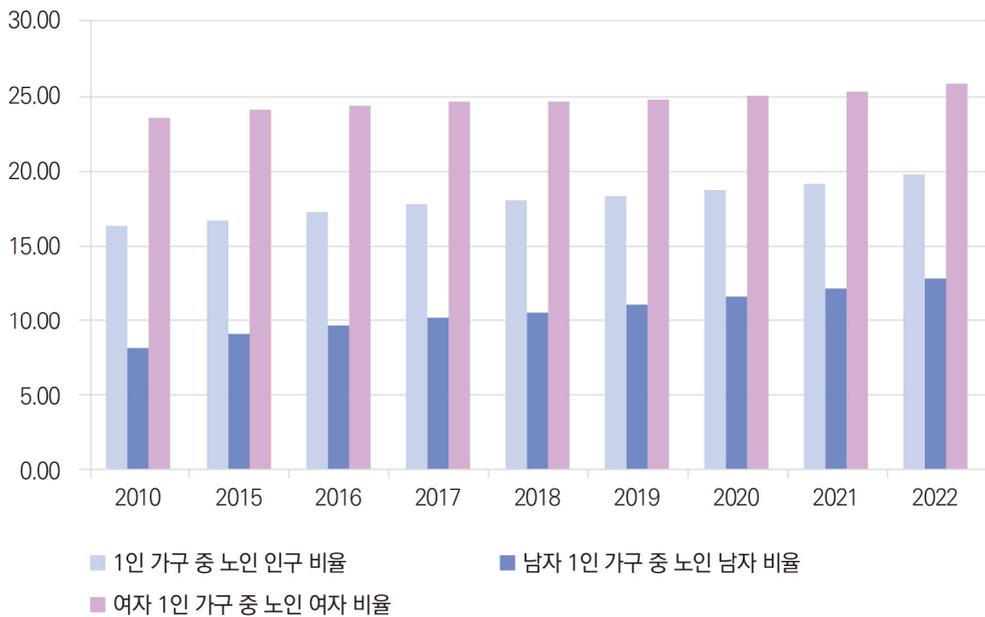


출처 : 서울시 통계자료(https://stat.eseoul.go.kr/statHtml/statHtml.do?orgId=201&tblId=DT_201004_F010003&conn_path=13)

- 노인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고독의 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층에 대한 복지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노인 자살률과 고독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며(매일일보, 2024.5.6.),³⁾ 이는 노인 1인가구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음

- 서울시의 노인 1인가구의 비중은 2010년 16.2%에서 2022년 19.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노인 고독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예컨대, 노원구와 도봉구는 1인 가구 중 노인 인구 비율이 30% 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외 8개의 자치구에서 1인 가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자체는 노인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함

그림 4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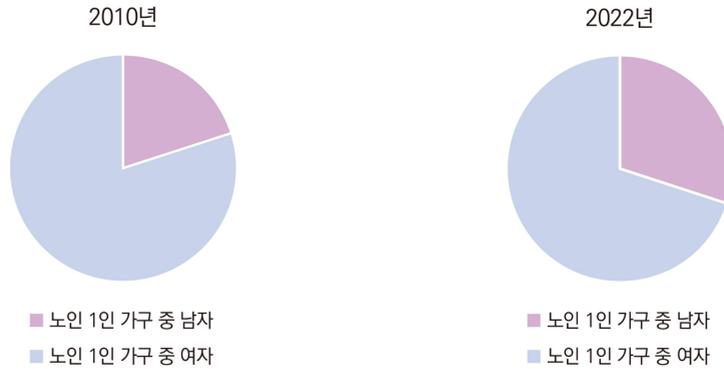


출처: 서울시 통계자료(https://stat.eseoul.go.kr/statHtml/statHtml.do?orgId=201&tblId=DT_201004_B010008&conn_path=I3)

- 또한 노인 1인가구 중 남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성별에 따른 맞춤형 노인 정책의 마련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자살·고독사 유발...노인 빈곤 심각'(매일일보, 2024.5.6.)(<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117374>)

그림 5 노인 1인 가구 중 남자와 여자 비율



출처 : 서울시 통계자료(https://stat.eseoul.go.kr/statHtml/statHtml.do?orgId=201&tblId=DT_201004_B010008&conn_path=13)

□ 자치구별 노인인구 현황

- 노인인구는 자치구별 차이가 있으며 노인인구비율도 자치구별로 상이함
 - 강서구(10만 3,825명)과 송파구(11만 520명)는 노인인구가 10만 명이 넘으며, 종로구(2만 9,127명)와 중구(2만 6,302명)는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적음
 - 가장 높은 노인비율을 보이는 강북구(23.81%), 도봉구(23.17%)는 초고령화 사회⁴⁾이며 가장 낮은 노인인구비율을 보이는 마포구(15.63%), 강남구(15.84%)도 고령사회⁵⁾로 이미 분류됨
 - 또한 서울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초고령사회(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가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로당에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표 1 서울시 자치구별 노인인구 현황(등록외국인 포함)

(단위 : 명, %)

구분	노인인구	노인인구비율	구분	노인인구	노인인구비율
평균	1,768,948	18.36	서대문	58,797	18.35
종로구	29,127	19.35	마포구	58,592	15.63
중구	26,302	19.95	양천구	77,423	17.69
용산구	39,671	17.76	강서구	103,825	18.31
성동구	50,098	17.62	구로구	81,360	19.64

4) UN기준 65세 이상 인구비율 20% 이상

5) UN기준 65세 이상 인구비율 14% 이상

구분	노인인구	노인인구비율	구분	노인인구	노인인구비율
광진구	57,768	16.46	금천구	46,198	19.19
동대문	67,880	18.84	영등포	68,650	17.25
중랑구	80,250	20.71	동작구	71,335	18.31
성북구	81,280	18.60	관악구	86,455	17.37
강북구	69,366	23.81	서초구	66,556	16.14
도봉구	71,572	23.17	강남구	88,662	15.84
노원구	97,596	19.45	송파구	110,520	16.75
은평구	95,209	20.25	강동구	84,456	18.14

출처 : 서울특별시 통계자료(<https://data.seoul.go.kr/dataList/10718/S/2/datasetView.do>)

2. 서울시 경로당 현황 분석⁶⁾

□ 경로당 현황

- 서울시 내 경로당은 총 3,609개로 자치구당 평균 144.4개의 경로당이 있음
 - 서울시 경로당 수는 2024년 3월 31일 기준 3,609개로 구별로 적게는 50개(중구)부터 많게는 256개(노원구)가 있음
 - ▷ 노인인구가 10만 명이 넘는 강서구(10만 3,825명)와 송파구(11만 520명)는 각각 경로당 수가 220개와 180개로 자치구별 평균(144.4개)에 비하여 많은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시 내 노인인구 대비 경로당 이용비율은 7.29%로 이용비율이 10%를 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음
 - 노인인구 대비 경로당 이용비율이 높은 구는 중구(10.81%), 성동구(14.34%), 마포구(11.52%)임
 - 노인인구 대비 경로당 이용비율이 낮은 구는 광진구(5.35%), 중랑구(5.91%), 도봉구(5.72%), 관악구(4.73%), 송파구(5.24%), 강동구(5.52%)임
 - 노인인구 대비 경로당 이용비율이 낮은 구 같은 경우, 5일제를 실시하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회원을 보유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6) 이하의 내용은 2024년 3월 기준,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에서 조사한 자료(서울시 제공)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 서울시 내 경로당의 평균 회원수는 35.5명임

- 서울시 경로당 별 평균 회원수는 35.5명이며, 가장 적은 평균 회원수를 보유한 경로당은 도봉구(30명), 노원구(30명), 강서구(30명)이며, 중구(56명)는 가장 평균 회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중구의 경우 경로당 수는 가장 적은 반면, 평균 회원수는 가장 많아 경로당 수의 확대 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2 서울시 구별 경로당 현황

(단위: 개, %, 명)

구분	경로당 수	노인인구 대비 경로당 이용비율*	경로당 1개소당 평균 회원수**	구분	경로당 수	노인인구 대비 경로당 이용비율*	경로당 1개소당 평균 회원수**
평균	144.4	7.29	35.5	서대문	119	6.72	33
종로구	64	8.41	38	마포구	158	11.52	42
중구	50	10.81	56	양천구	170	6.86	31
용산구	92	9.05	38	강서구	220	6.40	30
성동구	164	14.34	44	구로구	208	8.85	34
광진구	97	5.35	32	금천구	77	6.55	38
동대문	138	8.45	41	영등포	180	9.39	35
중랑구	133	5.91	36	동작구	147	8.14	39
성북구	183	6.95	31	관악구	115	4.73	35
강북구	102	6.87	47	서초구	141	7.64	36
도봉구	137	5.72	30	강남구	176	7.08	36
노원구	256	7.94	30	송파구	180	5.24	32
은평구	163	6.44	38	강동구	139	5.52	33

* 노인인구 대비 경로당 이용비율 : 구별 경로당 회원수/구별 노인 인구수*100

** 경로당 1개소당 평균 회원수 : 구별 경로당 회원수/경로당 수

자료: 통계청 고령인구비율(시도/시/군/구) 202403과 서울시 내부자료

□ 경로당의 주 1회 이상 식사 제공 현황

- 서울시에서는 약 86%의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약 23%의 경로당에서 주 5일 식사를 제공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3,609개의 경로당 중에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은 3,090개로 식사 제공 경로당의 비율은 85.62%로 전국⁷⁾ 평균인 85.03%로 보다 높은 편임
- 그러나, 경로당 수 대비 주 5일 식사 제공 경로당 비율은 22.61%로 전국 평균인 32.93%에 비해 적은 편이며,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경로당 중 주 5일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의 비율도 전국 평균(38.72%)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일주일 중 평균 식사제공 횟수를 살펴보면 전국(4.2회)에 비하여 서울시(3.3회)가 적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 즉, 서울시는 전국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은 많지만, 전국에 비하여 대체로 특정 요일에만 선별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3 서울시 경로당 식사 제공 현황

(단위 : %, 회)

구분	식사 제공 현황(비중)				
	전국	서울시			
	평균	평균	최소	최대	
식사 제공 경로당 비중(%)	식사 제공 경로당* / 전체 경로당	85.03	85.62	61.70	98.04
식사 5일제 시행 경로당 비중(%)	주 5일 식사 제공 경로당 / 전체 경로당	32.93	22.61	2.92	87.83
	주 5일 식사 제공 경로당 / 식사 제공 경로당	38.72	26.41	3.05	90.18
일주일 중 식사 제공 횟수(회)		4.20	3.30	-	-

* 식사 제공 경로당 : 일주일 중 식사를 1회~7회 제공하는 경로당

- 자치구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평균 85.62%의 경로당에서 주 1회 이상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치구 중 일주일에 1회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북구로 전체의 약 98%의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서초구는 약 62%의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은 차후 5일제 식사제공 시에도 식사도우미 및 주방설치 등 추가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7) 경남과 제주를 조사 데이터에서 없음

표 4 자치구별 경로당 식사제공 현황

(단위 : %)

구분	식사제공 경로당 비중 (1회 이상)	경로당 수		구분	식사제공 경로당 비중 (1회 이상)	경로당 수	
		전체 경로당 수	식사제공 경로당 수			전체 경로당 수	식사제공 경로당 수
평균	85.62	3,609	3,090	서대문	94.12	119	112
종로구	92.19	64	59	마포구	77.22	158	122
중구	90.00	50	45	양천구	72.94	170	124
용산구	95.65	92	88	강서구	70.00	220	154
성동구	92.07	164	151	구로구	95.19	208	198
광진구	87.63	97	85	금천구	94.81	77	73
동대문	94.20	138	130	영등포	87.78	180	158
중랑구	94.74	133	126	동작구	74.83	147	110
성북구	96.72	183	177	관악구	97.39	115	112
강북구	98.04	102	100	서초구	61.70	141	87
도봉구	95.62	137	131	강남구	71.59	176	126
노원구	67.19	256	172	송파구	94.44	180	170
은평구	93.87	163	153	강동구	91.37	139	127

□ 주 5회 식사 제공 경로당 현황

- 전체 경로당 중 일주일에 주 5회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은 평균 22.61%로 전체 경로당의 약 1/4 정도가 현재도 경로당 중식 5일제를 사실상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치구 내 전체 경로당 중 일주일에 주 5회 중식을 제공하는 경로당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관악구로, 관악구 내 전체 경로당의 약 88%가 주 5일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즉, 관악구의 경우는 이미 경로당 중식 5일제를 대부분 시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중식 5일제의 확대 시행 시 기존과 큰 차이가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경로당 중식 5일제를 도입(확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내 경로당의 약 75%에 추가적인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도봉구나 용산구의 경우 주 5일 중식을 제공하는 경로당은 전체 자치구 내 경로당의 약 3%에 불과하게 나타나고 있어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중식을 요일제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외에도 영등포구, 강남구 등 7개의 자치구에서는 주 5일 중식을 제공하는 경로당 수가 20개 미만으로 나타나 해당 지역에서는 경로당 중식 5일제는 확대가 아닌 도입의 수준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

표 5 자치구별 경로당 식사제공 현황

(단위 : 개, %)

구분	중식 5일제 시행 경로당 수	식사 5일제 시행 경로당 비중		구분	중식 5일제 시행 경로당 수	중식 5일제 시행 경로당 비중	
		전체 대비	식사제공 대비			전체 대비	식사제공 대비
평균	816	22.61	26.41	서대문	40	33.61	35.71
종로구	28	43.75	47.46	마포구	20	12.66	16.39
중구	29	58.00	64.44	양천구	24	14.12	19.35
용산구	3	3.26	3.41	강서구	42	19.09	27.27
성동구	27	16.46	17.88	구로구	28	13.46	14.14
광진구	37	38.14	43.53	금천구	5	6.49	6.85
동대문	17	12.32	13.08	영등포	16	8.89	10.13
중랑구	58	43.61	46.03	동작구	38	25.85	34.55
성북구	34	18.58	19.21	관악구	101	87.83	90.18
강북구	76	74.51	76.00	서초구	31	21.99	35.63
도봉구	4	2.92	3.05	강남구	13	7.39	10.32
노원구	18	7.03	10.47	송파구	58	32.22	34.12
은평구	42	25.77	27.45	강동구	27	19.42	21.26

□ 일주일 동안 중식 제공 횟수 현황

- 자치구별로 일주일 동안 식사를 제공하는 횟수는 평균 3.27번으로 나타남
 - 주 7일 중 서울시 경로당의 평균 식사 제공 횟수는 3.27번 나타나고 있으며, 송파구, 중구, 관악구, 강북구 등은 평균 4회 이상으로 나타나는 반면, 성동구, 동대문구, 도봉구, 노원구, 구로구는 평균 3회 미만 수준으로 나타남
 - 일주일 동안 식사를 제공하는 평균 횟수가 높은 지역은 경로당 중식 5일제 도입(확대)을 위한 추가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평균 횟수가 적은 지역은 경로당 중식 5일제 도입을 위한 추가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중식제공 횟수가 이미 많은 지역은 중식 5일제 실시 시 제도를 받아들여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예상됨

표 6 자치구별 주 7일 중 평균 중식 제공 횟수

(단위 : 회)

구분	평균 식사 제공 횟수	중식5일제 도입(확대) 용이성*	구분	평균 식사 제공 횟수	중식5일제 도입(확대) 용이성
평균	3.27	-	서대문	3.70	높음
종로구	3.70	높음	마포구	3.00	낮음
중구	4.20	높음	양천구	3.00	낮음
용산구	3.00	낮음	강서구	3.10	낮음
성동구	2.87	낮음	구로구	2.80	낮음
광진구	3.75	높음	금천구	3.20	낮음
동대문	2.50	낮음	영등포	3.00	낮음
종랑구	3.60	높음	동작구	3.00	낮음
성북구	3.00	낮음	관악구	4.80	높음
강북구	4.60	높음	서초구	3.00	낮음
도봉구	2.70	낮음	강남구	3.00	낮음
노원구	2.02	낮음	송파구	4.00	높음
은평구	3.00	낮음	강동구	3.24	낮음

* 전체 평균 식사 제공 횟수 < 자치구의 평균 제공 횟수 = 중식 5일제 도입(확대) 용이성이 높음
 전체 평균 식사 제공 횟수 > 자치구의 평균 제공 횟수 = 중식 5일제 도입(확대) 용이성이 낮음

□ 식사 1회당 평균 이용인원 현황

- 경로당 식사 제공 시 1회당 평균 이용인원을 통해 경로당 식사의 활성화정도를 살펴볼 수 있음
 - 경로당 일일평균 식사 이용인원은 18.25명이며, 가장 적은 곳은 서초구(11.00명), 강서구(12.40명), 마포구(14.00명), 종로구(15.00명), 용산구(15.00명), 성동구(15.00명)임
 - 이용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26.00명), 강북구(25.00명), 강남구(24.00명), 관악구(23.00명), 중구(22.00명), 금천구(21.00명)임
 - 경로당 식사이용 노인이 많은 경우 경로당 차원에서 식사이용이 활성화되었고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마련된 것으로 인식해볼 수 있음
 - 따라서, 구차원에서 주 5일 제공 경로당 비율이 많더라도 이용인원이 많은 것은 아님

표 7 식사 1회당 이용 노인수

(단위 : 명)

구분	1회당 이용노인수	경로당 식사 이용의 활성화 정도*	구분	1회당 이용노인수	경로당 식사 이용의 활성화 정도*
평균	18.25	-	서대문	15.40	낮음
종로구	15.00	낮음	마포구	14.00	낮음
중구	22.00	높음	양천구	20.00	높음
용산구	15.00	낮음	강서구	12.40	낮음
성동구	15.00	낮음	구로구	17.90	낮음
광진구	16.80	낮음	금천구	21.00	높음
동대문	18.00	낮음	영등포	20.00	높음
중랑구	19.00	높음	동작구	16.00	낮음
성북구	20.00	높음	관악구	23.00	높음
강북구	25.00	높음	서초구	11.00	낮음
도봉구	18.00	낮음	강남구	24.00	높음
노원구	16.66	낮음	송파구	26.00	높음
은평구	18.00	낮음	강동구	17.16	낮음

* 전체 평균 < 자치구 평균 = 높음 / 전체 평균 > 자치구 평균 = 낮음

□ 경로당 노인 일자리 참여자 현황

- 경로당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한 개소당 평균 1.58명으로 앞으로 주 5일 중식 제공을 하면 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각 구별로 살펴보면 경로당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광진구(0.92명), 노원구(0.99명), 마포구(0.82명), 양천구(0.97명), 강서구(0.58명)로 적은 편이며, 중구(3.62명), 중랑구(3.24명)는 많은 편임
 - 중식을 제공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없어서 자급적으로 회원들이 중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경로당이 있음
 - 따라서, 주 5일 중식 제공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필요한데,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구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됨

표 8 서울시 구별 노인일자리 참여자

(단위: 명, 개소, 명)

구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명)	중식 제공 경로당 수	경로당 1개소당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	구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명)	중식 제공 경로당 수	경로당 1개소당 노인일자리 참여자 수
합계	4,881	3,090	1.58	서대문	228	112	2.04
종로구	80	59	1.36	마포구	100	122	0.82
중구	163	45	3.62	양천구	120	124	0.97
용산구	120	88	1.36	강서구	90	154	0.58
성동구	205	151	1.36	구로구	303	198	1.53
광진구	78	85	0.92	금천구	164	73	2.25
동대문	309	130	2.38	영등포	237	158	1.50
중랑구	408	126	3.24	동작구	230	110	2.09
성북구	189	177	1.07	관악구	225	112	2.01
강북구	266	100	2.66	서초구	96	87	1.10
도봉구	176	131	1.34	강남구	175	126	1.39
노원구	170	172	0.99	송파구	240	170	1.41
은평구	310	153	2.03	강동구	199	127	1.57

3. 서울시 현황 종합 분석

- 유형별로 1끼 평균 식사 인원 및 중식 비율을 유형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I유형(평균 식사제공 횟수가 높으면서 식사인원이 많은 지자체) : 중구, 중랑구, 강북구, 관악구, 송파구
 - II유형(평균 식사제공 횟수가 높으면서 식사인원이 적은 지자체) : 종로구, 광진구, 서대문
 - III유형(평균 식사제공 횟수가 낮으면서 식사인원이 많은 지자체) : 성북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남구
 - IV유형(평균 식사제공 횟수가 낮으면서 식사인원이 적은 지자체) :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서초구, 강동구
 - 평균 식사제공 횟수가 높으면서 식사인원이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중식 5일제 전면 실시에 대처하기 용이해 보임

- 반면, 평균 식사제공 횟수가 낮으면서 식사인원이 적은 지역은 중식 5일제로 인해 증가하는 중식인원과 식사제공의 확대를 감당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여 지자체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해 보임

표 9 구별 식사인원과 식사제공비율에 따른 구분

	식사인원 많음*	식사인원 적음*
평균 식사제공 횟수 높음**	I유형 (중구, 중랑구, 강북구, 관악구, 송파구)	II유형 (종로구, 광진구, 서대문)
평균 식사제공 횟수 낮음**	III유형 (성북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남구)	IV유형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서초구, 강동구)

* 전체 평균 < 자치구 평균 = 높음 / 전체 평균 > 자치구 평균 = 적음

** 전체 평균 < 자치구 평균 = 높음 / 전체 평균 > 자치구 평균 = 낮음

III 경로당 중식 5일제 전면 시행에 따른 수요예측

1. 경로당 중식 5일제 전면시행에 따른 수요예측⁸⁾

□ 구별 식사제공 희망 경로당 현황

- 구별 신규 식사제공 희망 경로당 수⁹⁾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중식 희망 경로당이 많으므로 중식제공에 걸맞은 환경조성이 필수적임
 - 서울시 전체 중 신규 식사제공 희망 경로당 수는 258개로 식사제공이 없는 경로당 519개 중 49.71%가 식사제공을 희망하였음
 - 식사제공 없는 경로당 중 식사제공을 희망하는 경로당이 하나도 없는 구(강북구, 도봉구, 금천구)도 있었으며 중랑구, 영등포구, 관악구, 송파구, 강동구는 오직 한 개소의 경로당만 식사제공을 희망하였으며, 종로구, 노원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서초구도 그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였음
 - 반면, 용산구와 동대문구, 은평구는 식사제공이 없는 경로당 중 신규 식사제공을 희망하는 경로당이 100%였으며 중구, 성동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작구, 강남구도 과반수 이상의 경로당이 신규 식사제공을 희망하였으며, 대부분의 자치구의 경로당은 식사제공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임
 - 전체적으로 중식을 희망하는 경로당이 많으므로 경로당 중식 제공을 위한 환경조성은 필수적임

8) 이하의 내용은 2024년 3월 기준,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에서 조사한 자료(서울시 제공)를 토대로 연구진이 작성하였음

9) 성북구, 광진구는 조사결과 없음

표 10 서울시 전체 중식제공 경로당 현황

(단위 : 개, %)

구분	식사제공 없는 경로당 수	식사제공 희망하는 경로당 수	식사제공 희망하는 경로당 수/ 식사제공 없는 경로당(%)	구분	식사제공 없는 경로당 수	식사제공 희망하는 경로당 수	식사제공 희망하는 경로당 수/ 식사제공 없는 경로당(%)
평균	519	258	49.71	서대문	7	4	57.14
종로구	5	2	40.00	마포구	36	35	97.22
중구	5	3	60.00	양천구	46	15	32.61
용산구	4	4	100.00	강서구	66	28	42.42
성동구	13	12	92.31	구로구	10	4	40
광진구	12	-	-	금천구	4	0	0
동대문	8	9	100 ¹⁰⁾	영등포	22	1	4.55
중랑구	7	1	14.29	동작구	37	36	97.30
성북구	6	-	-	관악구	3	1	33.33
강북구	2	0	0	서초구	54	24	44.44
도봉구	6	0	0	강남구	50	39	78.00
노원구	84	28	33.33	송파구	10	1	10.00
은평구	10	10	100.00	강동구	12	1	8.33

※ 없는 수치는 조사 미 실시

● 구별 식사제공 횟수 확대 희망 경로당 수(1~4회 식사 제공 중인 경로당 대상¹¹⁾)를 살펴보면 신규 식사제공 확대 희망 비율보다 높은 수치임

- 서울시 전체 중 식사 제공 확대 희망 경로당 수는 1,653개로 1~4회 식사제공 중인 2,274개 중 72.69%가 식사제공 확대를 희망하였으며 이 수치는 신규 식사제공 확대 희망 비율보다 높은 수치임
- 성동구, 동대문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강서구, 금천구, 관악구, 강남구, 강동구는 식사제공 확대를 희망하는 경로당이 100%였으며, 종로구(90.32%), 중랑구(70.59%), 노원구(66.23%), 마포구(77.45%), 양천구(84%), 영등포구(54.93%), 서초구(73.21%), 송파구(82.14%)로 꽤 많은 경로당이 식사제공 확대를 희망하였음

10) 수치 이상으로 100으로 수치 조정

11) 성북구, 광진구는 조사결과 없음

- 반면, 중구(43.75%), 용산구(7.06%), 서대문구(27.78%), 구로구(42.94%), 동작구(37.50%)는 식사제공 확대를 희망하는 경로당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음
- 중식 주 5일제를 전면 실시하게 됨에 따라 경로당이 중식 확대를 희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제도적, 환경적 요소를 분석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

표 11 구별 중식 확대 희망 경로당 현황

(단위 : 개, %)

구분	1~4회 중식제공 경로당 수	중식 확대 희망 경로당 수	중식 확대 희망 경로당/ 1~4회 중식 경로당 비율	구분	1~4회 중식제공 경로당 수	중식 확대 희망 경로당 수	중식 확대 희망 경로당/ 1~4회 중식 경로당 비율
평균	2,274	1,653	72.69	서대문	72	20	27.78
종로구	31	28	90.32	마포구	102	79	77.45
중구	16	7	43.75	양천구	100	84	84.00
용산구	85	6	7.06	강서구	112	154	100 ¹²⁾
성동구	124	136	100 ¹³⁾	구로구	170	73	42.94
광진구	48	-	- ¹⁴⁾	금천구	68	73	100 ¹⁵⁾
동대문	113	113	100.00	영등포	142	78	54.93
중랑구	68	48	70.59	동작구	72	27	37.50
성북구	143	-	- ¹⁶⁾	관악구	11	11	100.00
강북구	24	24	100.00	서초구	56	41	73.21
도봉구	127	130	100 ¹⁷⁾	강남구	113	113	100.00
노원구	154	102	66.23	송파구	112	92	82.14
은평구	111	111	100.00	강동구	100	103	100 ¹⁸⁾

12) 수치 이상으로 100으로 수치 조정
 13) 수치 이상으로 100으로 수치 조정
 14) 조사 안함
 15) 수치 이상으로 100으로 수치 조정
 16) 조사 안함
 17) 수치 이상으로 100으로 수치 조정
 18) 수치 이상으로 100으로 수치 조정

□ 식사제공 희망 경로당 수요예측 종합

- 식사제공을 희망하는 경로당과 식사제공 확대를 희망하는 경로당 수요 예측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음
 - I유형(식사제공을 신규 희망하는 경로당 비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고, 식사제공 확대를 희망하는 경로당 비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은 지자체) : 성동구, 동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강남구
 - II유형(식사제공을 신규 희망하는 경로당 비율이 낮고, 식사제공 확대를 희망하는 경로당 비율이 높은 지자체) : 종로구, 강북구, 도봉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 III유형(식사제공을 신규 희망하는 경로당 비율이 높고, 식사제공 확대를 희망하는 경로당 비율이 낮은 지자체) :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동작구
 - IV유형(식사제공을 신규 희망하는 경로당 비율이 낮고, 식사제공 확대를 희망하는 경로당 비율이 낮은 지자체) : 중랑구, 노원구, 구로구, 영등포구
 - 식사제공 수요가 낮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식사제공 수요가 높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표 12 신규식사제공 희망 경로당 비율과 식사제공 확대 경로당 비율에 따른 구분

	신규식사제공 희망 경로당 비율 높음	신규식사제공 희망 경로당 비율 낮음
식사제공 확대 희망 경로당 비율 높음	I유형 (성동구, 동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강남구)	II유형 (종로구, 강북구, 도봉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식사제공 확대 희망 경로당 비율 낮음	III유형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동작구)	IV유형 (중랑구, 노원구, 구로구, 영등포구)

2. 중식 5일제 의무 확대 시 경로당의 변화

- 중식 5일제 의무 확대 시 경로당 변화를 살펴보면 지자체별로 다양하여 차별화되고 경로당의 환경요소를 고려한 방안이 필요함
 - 중식 5일제 의무 확대 시에는 서울시 전체로 보면 519개의 경로당에서 중식을 처음 시작해야 하며 적은 곳은 2곳(강북구), 많은 곳은 84개(노원구)에서 처음 중식을 시작해야 함

- 주 5일제 실시 시, 1~4회 중식이 실시되던 경로당에 추가되는 중식 횟수¹⁹⁾도 지자체마다 다양함
- 작계는 일주일에 22.4끼(관악구)에서, 많게는 일주일에 512.56끼(노원구)로 다양하며, 서울시 평균으로 보면 구별로 224.28끼를 추가로 시행해야 함
- 주 5일제 실시 시, 1~4회 중식이 실시되던 경로당은 1개소당 일주일에 평균 2.4끼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며, 적은 곳은 송파구(1.52끼)이며, 많은 곳은 노원구(3.33끼)임²⁰⁾
- 중식 5일제를 의무로 실시하게 되면 추가로 필요한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 보아야 함

표 13 중식 5일제 의무 확대 시 경로당 변화

(단위 : 개)

구분	신규 식사제공이 필요한 경로당(개소)	주 5일제 시 추가되는 중식 횟수 ²¹⁾	경로당 1개소별 추가되는 중식 횟수 ²²⁾	구분	신규 식사제공이 필요한 경로당(개소)	주 5일제 시 추가되는 중식 횟수	경로당 1개소별 추가되는 중식 횟수
평균	519	224.28	2.4	서대문	7	145.6	2.02
종로구	5	76.7	2.47	마포구	36	244.0	2.39
중구	5	36.0	2.25	양천구	46	248.0	2.48
용산구	4	176.0	2.07	강서구	66	292.6	2.61
성동구	13	321.63	2.59	구로구	10	435.6	2.56
광진구	12	106.25	2.21	금천구	4	131.4	1.93
동대문	8	325	2.88	영등포	22	316.0	2.23
종랑구	7	176.4	2.59	동작구	37	220.0	3.06
성북구	6	354	2.48	관악구	3	22.4	2.04
강북구	2	40	1.67	서초구	54	174.0	3.11
도봉구	6	301.3	2.37	강남구	50	252.0	2.23
노원구	84	512.56	3.33	송파구	10	170.0	1.52
은평구	10	306	2.76	강동구	12	223.52	2.24

출처 : 연구진 작성

19) 수치계산 : 5일제 중식 실시 시 경로당에 추가되는 중식 횟수 = 식사제공 경로당 수*5-경로당별 평균 식사제공 수*식사제공 경로당 수

20) 수치계산 : 경로당 별 추가되는 중식 횟수 = 5일제 중식 실시 시 경로당에 추가되는 중식 횟수/1~4회 중식 제공 경로당 수

21) 1~4회 식사 제공 경로당 대상으로 일주일 단위로 계산

22) 1~4회 식사 제공 경로당 대상으로 일주일 단위로 계산

IV 경로당 중식 5일제 전면 시행에 따른 주요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현재 제도의 문제점

□ 보건복지부 실태조사²³⁾를 통해 살펴본 문제점

- 중식도우미 참여가 저조함
 - 중식도우미 단가가 낮으며 중식도우미 신청 자격이 복잡함
- 운영비와 냉난방비 사용에 유연성이 없음
 - 운영비와 냉난방비용이 남을 경우, 유연하게 다른 품목에 사용할 수 없음
- 중식 지원이 곤란(리모델링 등)하여 중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로당이 있음

□ 구 회의록에 언급된 중식 5일제 실시 시 예상되는 문제점²⁴⁾

- 경로당 식사 도우미 문제 : 중식인원에 비해 적은 급식도우미 수
- 환경 문제 : 좁은 주방과 좌식 식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 배기구 미설치 경로당이 있음
- 구 지원 문제 : 구 지원이 늦음

23) 서울시 제공

24) 금천구(2024년 제1차 본회의), 마포구의회 감사(2023년 6월 2일-6월 9일)

2. 인터뷰를 통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인터뷰 대상 및 조사방법

- 2024년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울시 일대 경로당 및 구청에서 인터뷰 실시
 - 경로당 관련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함(A, B, C, D, E: 경로당 회장 및 구성원, 구청 담당자, F: 서울시 노인 관련 단체)
 - I유형과 IV유형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일자리 참여자 비율이 낮은 지역, 높은 지역을 고루 조사하여 대면 인터뷰 실시²⁵⁾²⁶⁾

표 14 인터뷰 대상

	식사인원 많음*	식사인원 적음**
평균 식사제공 횟수 높음**	I유형(A, B-1, B-2)	II유형
평균 식사제공 횟수 낮음**	III유형	IV유형(C, D, E)

* 전체 평균 < 자치구 평균 = 높음 / 전체 평균 > 자치구 평균 = 적음

** 전체 평균 < 자치구 평균 = 높음 / 전체 평균 > 자치구 평균 = 낮음

표 15 인터뷰 질문 내용

질문 번호	질문
1	현재 경로당에 가장 필요한 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귀하의 경로당에 중식은 일주일에 몇 번 실시하고 있나요?
3	귀하의 경로당에 중식에 참여하는 평균 인원은 몇 명인가요?
4	중식 주 5일제 전면실시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할 경우) 찬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대할 경우)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	중식 주 5일제 전면실시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6	현재 중식도우미는 잘 운영되고 있나요? 중식 주 5일제 전면실시 시 중식 도우미 추가 모집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을까요?
7	경로당의 중식제공을 위한 환경조성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8	추가로 중식지원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25) 거동이 불편하신 경로당 회장님 한 분은 전화로 인터뷰를 실시

26) 지자체의 요청으로 지자체 명이 아닌 지자체의 경로당 특징으로 기재

2) 경로당의 역할과 중식 주5일제 실시 시 예상되는 문제점

□ 경로당에서 중식의 의미

- 경로당에서 중식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오는 이유이기도 하며, 경로당이 활성화되는 원동력이기도 함

- 어르신들의 식사는 가장 큰 문제이며, 식사를 하러 경로당의 오시는 경우가 70%가 되는 듯함(A)
- 또한 거의 노인 중 5%의 인구가 이용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요함(A)
- 식사를 해야 경로당 회원이 많이 나오고 식사를 안 하는 화요일과 목요일은 상대적으로 적게 출석함(B-1)
- 경로당에서 중식을 제공하니 그나마 노인들이 나오는 것이고, 중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노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않음...(중략)...그나마 중식을 제공하는 경우, 나와서 서로 교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교류가 활성화되어야만 경로당이 활성화 되는 것임(D)

- 중식이 경로당 노인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노인에게는 노인 프로그램 못지않게 중식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됨(A)
- 식사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식사를 하고 귀가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주 이용시간이 식사 때이며 프로그램(노래, 체조, 안마, 컴퓨터사용법)도 그 전후로 잡히는 경우가 많음(A)
- ○○○동 경로당에서는 간단한 체육프로그램을 시립복지관에서 봉사를 받아서 수행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규모 등의 면에서 복지관과 다르기 때문에 노인들이 이곳에 모이게 하는 어떠한 수단은 없음(D)

□ 중식 도우미와 관련된 문제점

- 중식도우미 모집에 있어서 지원자가 없거나 80세 이상의 어르신이 모집되는 경우가 많음

- 지금은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에 한해 노인일자리의 형태로 중식도우미가 운영되고 있으며 80대 노인이 업무 수행함(D)
- 결원 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이 구청 차원에서 마련되어야만 하는데, 현재는 기본 인력조차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희생하며 봉사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D)
- 도우미가 필요하고, 5일제를 하게 되면 지원금이 더 나와야 함. 사람들이 더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중식도우미분들로는 운영하기 힘들. 83세 두 분인데 주 5일 동안 어떻게 일을 하겠음(B-1)

- 주 3일제 기준 2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던 중식도우미들이 30시간 근무를 해야 하며, 한 달에 10일 일자리가 아니라 20일 일자리가 됨. 최소 2명은 있어야 하며, 현재도 미달인 중식도우미가 총원이 안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경로당 회원이 중식도우미 역할을 하게 됨(A)

● 또한 중식도우미가 적은 임금과 노동의 강도 때문에 계속 그만두는 현상이 있음

- 중식도우미가 더 필요한데 지금 계신 분으로 5일제를 하게 되면 앞으로 식사 인원도 더 늘어날 텐데 힘들. 지금 83세 두 분이 일을 하고 계신데 주5일을 어떻게 더 일을 하겠음. 임금이 적기 때문에(시급 13,000원) 60대 후반, 70세 젊은 사람들은 안 하려고 함. 수급자만 모집하니까 구하기 힘들(B-1)
- 지금은 20~25명이 식사하지만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100명 이상이어도 2분까지 밖에 지정이 안 되니 힘들 것 같고 지금은 회원님들이 서로 도와서 운영하는 중임(B-1)
- 회원 입장에서도 주 5일제는 좋으나 현재도 힘든 실정임. 회원이 많아질 것을 고려하여 환경개선과 도우미 문제 해결이 주 5일제보다 선행되어야 함(B-2)

● 앞으로 5일제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중식도우미를 총원해야 하며 도우미 문제가 중식 5일제보다 먼저 해결되어야 함

- 중식도우미와 부식비가 제일 문제임. 중식도우미는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이 29만 원을 받고 일하고 있으며, 많은 노인 일자리 중 중식도우미가 기피하는 일자리 중 하나임. 그렇기 때문에 구차원에서 10만 원을 더 드려 37만 원을 드리지만 여전히 중식도우미가 부족함(A)
- 중식도우미가 없어서 힘들. 중식도우미가 자주 그만둬(E)
- 중식도우미 2명, 청소도우미 1명까지 최대 3명이 평균 30여 명의 중식을 모두 책임지고 있는 상황임. 회장님 과의 친분으로 겨우겨우 중식도우미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계속 그만두고 싶어함. 현재 여유 도우미가 없는 상황에서 한 명의 급작스러운 결원은 아예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으로까지 이어짐(D)
- 2022년까지는 주 5일 중식을 제공하였지만, 중식도우미가 너무 힘들다고 해서 2023년부터는 주 4일 중식을 제공하고 있음(D)
- 공익형 일자리 29만 원은 아예 있을 수 없으며 현재 금액으로는 운영되기 힘들(F)

□ 부식비 문제

- 현재 경로당에서 자발적으로 부족한 부식비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함

- 현재, 공과금과 잡비 포함, 부식비까지 64만 원 안에서 모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며 고물가 상황에서 반찬 재료 사기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 반찬을 위하여 보통 하루에 3만 원 정도밖에 못 쓰는 상황임.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각자 집에서 반찬을 해오기도 하며 서로 돕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한 것일 뿐, 근본적 대책은 아님(D)
- 부식비는 현재도 부족한 상황(A)
- 평균적으로 경로당에서 한 사람당 한 끼에 300~500원의 부식비로 먹고 있음(F)
- 반찬값이 늘 부족함(B-2)

□ 열악한 시설환경

- 열악한 시설환경이 존재하며, 규모가 작은 곳은 중식 주 5일제를 실시하기에 무리가 있어 보임

- ○○동 쪽에 열악한 경로당이 있는데 시설도 열악한데 요리를 하는 것은 화재위험도 있어 보임. 집단급식소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가 싶음(C)
- 규모가 작은 곳은 시설이 열악하여 경로당을 운영하기 더 힘들 것으로 생각(B-1)
- 주 5일제를 하면 식기와 주방용품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됨(B-2)
- 식사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실정은 신문지 깔고 먹고 있는 실정(F)
- 5평 미만의 경로당이 서울시에서 16개이며, 10평 미만은 500개임(F)

□ 중식 5일제 실시 시 회원증가로 인한 문제점

- 중식 5일제를 실시할 경우 회원이 증가하게 되는데 경로당 규모는 한정적이며 기존 회원과의 대립이 발생할 수도 있음

- 경로당을 무료급식이라 여기고 전화가 옴. 경로당 규모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회원 수를 원한다고 늘릴 수가 없음. 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받으세요”라고 강요할 수 없음. 경로당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공간이 부족한데 더 받으라고 하기는 힘들(A)
- 중식 5일제로 회원이 증가하게 되면 부식비, 중식도우미, 요리사, 식탁과 의자 등 부족한 것이 많아짐(F)
- 중식 5일제를 실시하면 식기와 주방용품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됨(B-2)
- 중식 5일제를 하면 회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보다 넓은 주방이 필요함(B-1)
- 중식 5일제를 실시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경로당 내에서 밥을 준다고 하면 회원으로 가입으로 하실 텐데 기존 임원들이랑 엄청 싸울 것이고 왜 안 받아주냐고 할 것(B-1)

□ 경로당의 식단관리

● 식단관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전문 영양사 등은 전혀 없고, 현재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부식비)의 예산 내에서 살 수 있는 재료로 식단 마련, 그 외에는 각자 집에서 조금씩 가져오는 것으로 식사를 함(D)
- 건강보험법 50명 이상이면 조리사나 영양사를 뒀어야 하는데 그거를 할 예산이 없음(E)

3)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

□ 중식도우미 부재에 대한 해결방안

● 중식도우미의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시켜 다양한 사람들이 중식도우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중식도우미의 인원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중식도우미 조건 확대가 필요함.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 중 힘든 중식도우미를 하고자 하는 사람 소수임. 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 중 중식도우미 희망자가 있으며 젊은 인력이 유입되면 훨씬 더 좋을 듯(D)
- 현재는 공익형으로 지원대상이 제한이 있지만 차후 사회서비스형으로 바뀌 다양한 사람들이 지원이 가능하게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음(A)
- 1순위로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로 뽑고, 그게 안 되면 2순위로 수급자 아닌 사람을 뽑으면 지원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함. 그렇게 되면 젊은 60대, 70대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B-1)

● 중식도우미에게 부여하는 급여를 올려서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필요가 있음

- 한 달에 받는 비용을 5만 원~10만 원만 올리고 조금씩 그 비용을 증가시켰으면 좋겠음(B-1)
- 지금 중식도우미 임금은 월 29만 원이며, 너무 낮은 임금 때문에 하려는 사람이 없음. 따라서 중식도우미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임금을 높여야 함(D)

□ 양곡비 및 부식비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

● 부식비 지원을 국비로 하여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음

- 양곡비는 법에 명시되어 있어 국비 지원. 부식비도 국비로 지원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됨(A)

□ 열악한 환경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

● 차등을 두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을 듯함

- 5일제 실시 시 더 넓은 주방이 필요할 것 같음(B-1)
- 차등을 두어 필요한 곳의 환경을 먼저 조성해주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사립의 경우는 해드릴 수는 없음(C)
- 아파트 관리실에서 시설이며 대부분 관리하는 사립은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빠고, 구립이나 공립 등의 경로당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임. 구립이나 공립 경로당은 생각보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범 적용에 적합. 사립경로당은 아파트 등에서 스스로 관리가 가능하지만, 구립 경로당은 구청에서 신경 써주지 않으면 아예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적용 필요(D)

● 구비를 따로 편성해 노후화된 것을 교체 지원하여, 중식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함

- 식당이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해드리는 경우가 있음. 어느 정도 조성은 되어 있는 환경임. 6억 3천만 원 정도 구비로 따로 편성해서 식사하실 수 있게 지급. 식사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어 있음. 밥솥이라든지 노후화된 것이 있으면 교체지원을 해드리고 있음(A)

● 노인복지법으로 경로당에 대한 최소기준을 만들어 운영하여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경로당을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노인복지법을 개정해서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마련해주어야 함(F)

□ 중식 5일제로 인한 인원 증가 해결방안

● 중식 2부제를 실시하여 시간대별로 식사를 하게 하여 규모가 적은 경로당도 회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음

- 아파트 단지에 65세 이상이 1,000명 이상 됨. 100명까지는 받아야 함. 60명에서 100명이 되면 교대식을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B-1)

● 지속적으로 동사무소 차원에서 실질인원 파악 필요가 있음

• 경로당에서 더 많은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경로당 회원 수나 중식이용인원을 부풀려서 말함. 그러나 동사무소 직원은 수시로 경로당을 다니기 때문에 경로당의 실제 인원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음. 따라서 조사를 통한 인원 수 보다는 동사무소 직원이 경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제인원'을 고려해야 할 것임(D)

4) 종합

● 해당인터뷰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음

표 16 당사자들이 인식하는 중식 5일제 실시 시 발생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요약

쟁점	문제점	해결방안
중식도우미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자가 없거나 80세 이상의 어르신이 모집되는 경우가 많으며, 중식도우미가 적은 임금과 노동의 강도 때문에 계속 그만두는 현상이 있음 • 중식 5일제 실시 시 지금보다 많은 중식도우미를 충원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급 인상으로 동기부여 • 노령연금 수급자가 아니어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변경
부식비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족하여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부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차원에서의 지원 필요 • 시와 구 차원에서 지원 필요
시설환경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악한 시설환경이 존재하며, 규모가 작은 곳은 중식 5일제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차원에서 구립부터 차등적으로 지원 • 노후화된 것이 있으며 지자체에서 교체지원
회원증가로 인한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식 5일제 실시 시 회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경로당 규모는 한정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로 운영하여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하도록 도모 • 동사무소 차원에서 실제 인원을 파악하여 중식이용인원이 부풀려지는 것을 막아야 함
경로당의 식단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영양사가 없고 각자 조금씩 싸오기 때문에 부족한 영양소의 문제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단을 지자체 단위에서 짜주어 배포

V 결론

1. 연구요약

□ 서울시 노인 인구 현황

- 서울시 노인 인구비율 증가
 -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서울시 인구의 15.82%였으나,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8.36%로 증가
- 노인 복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인들의 증가
 - 80세 이상 인구비율도 증가하였으며, 노인기초생활수급자도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노인 1인 가구도 증가함
 - 1인 노인 가구 중 남자 비율도 갈수록 증가함

□ 서울시 경로당 현황과 중식 현황

- 3,609개의 경로당 중에 중식을 제공하는 경로당은 3,090개로 중식 제공 경로당의 비율은 85.62%임
 - 경로당 수 대비 주 5일 중식 제공 경로당 비율은 22.61%(전국 평균 32.93%)이었으며 식사 제공 중인 경로당 대비 주 5일 중식 제공 경로당 비율은 26.41%(전국 평균 38.72%)임
 - 주 7일 중 식사 제공 평균식사 제공횟수도 3.3개(전국 평균 4.2개)임
 - 구별로 조사한 결과, 1끼 평균 식사 인원이 많고 중식비율이 높은 곳은 중구, 중랑구, 강북구, 관악구, 송파구였으며, 식사인원이 적고 중식비율이 낮은 곳은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서초구, 강동구였음

□ 서울시 경로당 중식 희망수요

● 신규 식사제공 희망 경로당

- 서울시 전체 중 신규 식사 제공 희망 경로당 수는 258개로 식사 제공이 없는 경로당 519개 중 49.71%가 식사제공을 희망하였음

● 식사제공 횟수 확대 희망 경로당

- 서울시 전체 중 식사 제공 확대 희망 경로당 수는 1,653개로 1~4회 식사제공 중인 2,274개 중 72.69%가 식사제공 확대를 희망하였음

● 구별로 신규 식사제공 희망 경로당과 식사제공 횟수 확대 희망 경로당

- 식사제공을 신규 희망하는 경로당 비율(서울시 평균이상)이 높고, 식사제공 확대를 희망하는 경로당 비율(서울시 평균이상)이 높은 지자체는 성동구, 동대문구, 은평구, 강남구, 마포구였으며 식사제공을 신규 희망하는 경로당 비율이 낮고, 식사제공 확대를 희망하는 경로당 비율이 낮은 지자체는 중랑구, 노원구, 구로구, 영등포구였음

□ 서울시 경로당 전면 시행에 따른 예산 변화

● 5일제 의무 확대 시 경로당 변화

- 5일제 의무 확대 시에는 서울시 전체로 보면 519개의 경로당에서 중식을 처음 시작해야 하며 1-4회 중식이 실시되던 경로당에 추가되는 중식 횟수²⁷⁾도 구별로 224.28끼가 증가하며, 1~4회 중식을 실시하던 경로당은 평균 2.4끼를 추가로 준비해야 함

□ 경로당 전면 시행에 따른 관련자의 입장에 대한 조사

● 구회의록과 보건복지부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문제점 도출

- 중식도우미 문제, 환경문제, 운영비 문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낮은 구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음

27) 수치계산 : 5일제 중식 실시 시 경로당에 추가되는 중식 횟수= 식사제공 경로당 수*5-경로당별 평균 식사제공 수*식사제공 경로당 수

- 대한 노인회 서울시 연합회 입장과 경로당 회장, 지자체 담당자 인터뷰를 실시함
 - 인터뷰 결과, 중식도우미 문제, 부식비 문제, 시설환경 문제, 회원증가로 인한 문제, 경로당의 식단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음

2. 경로당 중식 주 5일제를 위한 정책 제언

□ 경로당의 의미

-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경로당은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며,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곳임

노인복지법의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에 따르면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

-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들은 중식 제공의 의미가 크다고 인식함
 - 따라서 경로당의 중식 주 5일제의 성공적인 운영은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친목도모활동을 증진시킬 것으로 여겨짐

□ 경로당의 중식 주 5일제를 위한 정책 제언

- 중식 5일제 전면 도입에 대한 구 차원에서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함
 - 이미 중식 5일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금천구, 관악구 같은 자치구도 있으며, 상대적으로 더딘 자치구가 있으므로 구 차원에서 서로 전면 실시 속도에 차등을 두어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경로당이 중식을 실시할 여력이 되지 못하는 곳은 담당자가 방문하여 문제점을 조속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인터뷰에서 언급되었듯이, 중식을 제공하기에 규모가 너무 작거나 주방이 없는 곳은 규모가 큰 경로당에 흡수시키거나 해당 경로당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함

- **경로당 중식도우미 부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 현재 경로당 중식도우미는 월 10회 근무에 27만 원 수당을 받고 있으며,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가능하여 자격조건이 안되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발생
 - 구 차원에서 5~10만 원을 수당으로 더 지불하거나, 경로당 회원들이 회비를 모아 중식도우미에게 주는 경우가 있었으며, 중식도우미가 80세 이상인 경우가 있다 보니 운영이 힘든 경우도 있었음
 - 더 나아가, 중식 5일제를 하게 되면 회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중식도우미의 일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중식도우미도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식도우미 모집대상에 대한 여러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
 - 1순위로 중식도우미의 기존 모집 조항인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모집이 안 되었을 시 2순위로, 65세 이상 일반 노인을 대상으로 모집함

- **경로당 중식도우미의 급여를 상향시켜 중식도우미 구인난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동사무소 중식도우미는 80만 원~90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으며, 중식도우미는 다른 일자리보다 힘든 일자리라는 인식이 존재하며, 그만두는 경우가 많음
 - 경로당 차원과 구 차원에서 구인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음
 - 한 번에 금액을 올리는 것보다 10만 원씩 인상시켜, 비슷한 강도의 다른 노인일자리와 동일한 금액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 **중식 주 5일제를 실시하게 될시, 부식비와 양곡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수요조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동사무소 차원에서 중식 5일제가 자리 잡기 전까지는 경로당을 방문하여 실제 중식 이용자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부식비도 부족한 수준이라는 의견들이 많은데 회원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신속하게 추가적인 부식비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노인들의 건강한 영양섭취를 위해 식단관리는 필요함**
 - 실제 이용자들이 부식비가 부족하여 자신들의 반찬을 싸오거나 적은 금액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음

- 노인에게 영양소 섭취는 중요하기 때문에 식단에 대한 매뉴얼을 주어 경로당에서 활용하여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
- 일부 노인들은 남자 노인들도 요리를 해서 중식도우미가 부재할 때 요리를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요리교실을 운영해달라고 제안을 하심
- **경로당의 회원증가로 인해 기존의 경로당 시설이 부족할 것을 대비하여 다양한 대책이 필요함**
 - 경로당이 규모가 작은 경우 시간제를 운영하여 11시 30분 식사, 12시 30분 식사 조로 나눠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함
 - 무작정 등록하려는 회원들만 많아지면 경로당이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꾸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회원이 많아진 경로당에는 주방을 추가로 보수 해주고 식탁과 의자를 지원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의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함
- **취약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경로당은 중식 주 5일제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경로당에 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 경로당은 취약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중식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함
- **경로당의 기능을 검토하여 앞으로 진행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경로당의 장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함**
 - 경로당은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하며, 노인들의 중식을 책임지는 곳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경로당 이용시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임.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구비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인 프로그램 시행이 아니라 교육 전문가들이 모여 장기적으로 노인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밀반찬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급식도우미 인력부족 문제와 비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임²⁸⁾**

28) 예천군 홈페이지(2024년 5월 29일). -주요뉴스- "예천군, 24년 행복경로당 밀반찬 지원 사업 개시"(<https://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headline/?i=144328>)

- 경상북도 예천군은 2022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행복경로당 밑반찬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이 사업은 경북광역자활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예천지역자활센터의 푼방길 장수반찬 사업단이 관내 경로당에 정기적으로 밑반찬을 제공하는 형태로 실시되고 있음
 - 관내 376개의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별 회당 17인분에 해당하는 2종류의 반찬을 지원함
 - 이로써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경로당 식사제공에 필요한 비용 부족 문제와 급식도우미 인력부족 문제를 일부분 보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더불어 자활참여자를 채용해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경로당에 부식비와 양곡지원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식사준비를 전담하는 도우미를 경로당에 제공한 사례가 있음²⁹⁾³⁰⁾
 - 충북 제천시에서 2023년 1월부터 시작된 점심 제공 사업은 경로당 운영비와는 별개로 식사 인원에 따라 부식비와 양곡지원을 차등적으로 지원함³¹⁾
 - 또한 경로당 이용 회원 대다수가 고령인 것을 감안하여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하루 3시간씩 월 60시간 동안 식사 준비를 도맡는 경로당복지도우미를 파견함³²⁾
 - 파견된 복지도우미는 만 60세 이상으로 기초연금과 관계없이 채용되며 주5일 경로당을 방문해 식사 준비와 뒷정리까지 담당함
 - 이러한 지원을 받은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원 이후에 경로당 식사 이용 인원수가 늘었고, 이러한 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³³⁾

29) 대한노인회제천시지회 취업지원센터(2023년 3월 22일). 2023년 2분기 경로당 점심제공지원사업 복지도우미 모집안내

30) 매일일보(2024년 5월 6일). '자살' 고독사 유발...노인 빈곤 심각'

31) 백세시대(2024년 2월 19일). '경로당 점심 제공' 모델 만든 충북 제천시

32) 백세시대(2024년 2월 19일). '경로당 점심 제공' 모델 만든 충북 제천시

33) 백세시대(2024년 2월 19일). '경로당 점심 제공' 모델 만든 충북 제천시

참고문헌

국내 및 해외 문헌

- 서울시복지재단. (2021). 서울시 경로당 기능강화 방안 연구.
- 주오이시디 대한민국 대표부. (2024년 1월 22일). 한 눈에 보는 연금 2023.

웹사이트

- 대한노인회제천시지회 취업지원센터(2023년 3월 22일). 2023년 2분기 경로당 점심제공지원사업 복지도우미 모집 안내.
- 매일일보(2024년 5월 6일). '자살·고독사 유발...노인 빈곤 심각'(<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117374>).
- 백세시대(2024년 2월 19일). '경로당 점심 제공' 모델 만든 충북 제천시(<https://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086>).
- 백세시대(2023년 7월 3일). 지자체들, 경로당 식사 지원...부식비 늘리고 식사도우미 파견(<https://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277>).
- 서울시 통계자료: 서울시 인구등록 통계.
- 서울시 통계자료(<https://data.seoul.go.kr/dataList/10718/S/2/datasetView.do>).
- 서울시 통계자료(https://stat.eseoul.go.kr/statHtml/statHtml.do?orgId=201&tblId=DT_201003_A010006&conn_path=I3).
- 서울시 통계자료(https://stat.eseoul.go.kr/statHtml/statHtml.do?orgId=201&tblId=DT_201004_F010003&conn_path=I3).
- 서울시 통계자료(https://stat.eseoul.go.kr/statHtml/statHtml.do?orgId=201&tblId=DT_201004_B010008&conn_path=I3).
- 예천군 홈페이지(2024년 5월 29일). -주요뉴스- "예천군, 24년 행복경로당 밀반찬 지원 사업 개시"(<https://ycg.kr/open.content/ko/administrative/news/headline/?i=144328>).
- 통계청 고령인구비율(시도/시/군/구).

구 회의록

- 마포구: 2023년 마포구의회 감사(2023.6.2.~6.9.)
- 금천구: 2024년 제1차 본회의

서울시 소재 경로당 중식 5일제 전면 추진의 수요 예측에 대한 연구

발간종류 정책이슈리포트

저 자 선소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발행일 2024년 6월 3일

발행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 소 (26464)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21(반곡동)

전 화 033-769-9999

홈페이지 <http://www.krila.re.kr>